

무등산이 빠졌네... 젊음의 명소 뜨고 생태관광지 여전히 인기



‘한국관광 100선’에 신규 선정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완도 청산도.

문화관광부 ‘한국관광 100선’ 광주·전남·전북 17곳 선정

대인예술시장·양림동역사문화마을을 광주 신흥 관광지 부상
순천만 습지·섬진강 기차마을·보성 녹차밭 3회 연속 뽑혀
관광 트렌드 변화 반영... 전북 삼례문화예술촌 등 이름 올려

■ 호남권 한국관광100선

광주	광주 대인예술시장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전남	순천만습지 & 순천만국가정원 담양 죽녹원 신안 홍도 완도 청산도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 여수 오동도 & EXPO 해양공원 강진 가우도 보성 녹차밭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전북	전주한옥마을 마이산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임실 치즈마을 군산시간여행(근대문화유산) 부안 변산반도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는 어딜까. 예전에는 광주 대표 관광지를 생각할 때 멋진 풍경과 역사성을 지닌 무등산이 첫손에 꼽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단순히 명소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장소에 깃든 이야기, 기존 자원을 재해석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역이 뜨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선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된 ‘한국관광 100선’은 2년마다 지역 대표관광지 100곳을 선정,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은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정됐다. 관광지 인지도·만족도, 방문 의향 등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SNS·내비게이션 등 자료(빅데이터) 분석이 반영됐다. 또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관광 통계 분석과 전문가 17인 서면·현장 평가도 고려됐다.

그 결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지역과 전통시장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광주에서는 2013년부터 2회 연속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던 무등산이 빠지고 대인예술시장

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양림동은 기독교 선교기념 유적과 시비(詩碑), 이장우·최승호 가옥 등이 곳곳에 자리하며 근대와 현대가 자연스레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다. 청년들의 발길을 끈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지난해 열렸던 ‘1930 양림살롱’이다. 매달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수요일)마다 마을 카페, 갤러리, 식당, 역사유적이 연계돼 공연,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서울 북촌마을에서 한복입기가 인기를 끌었다면 양림동에서는 매편모자, 양복, 발목이 드러나는 한복을 입은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많이 보인 점이 특징이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던 대인예술시장은 지난 2008년 청년작가들에게 비어있는 점포를 싼 임대료에 제공하는 광주 비엔날레 ‘북덕방 프로젝트’를 계기로 젊음의 거리가 됐다. 토요일마다 플라마켓 위주로 꾸며진 야시장 ‘별장’이 개장되며 매 주말이면 수천명이 찾고 있는 전국적인 명소다. 곳곳에 그려진 벽화, 그림으로 치장한 식당, 음악·인문학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다.

전남 지역(9곳)은 생태 관광지 비중이 높다. 신안 홍도, 완도 청산도, 강진 가우도 등 섬을 비롯해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이 신규 선정됐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섬 ‘홍도’는 목포 서남쪽 115km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풍란 자생지이자 동백·후박나무 등 희귀식물 540여종과 동물 231종이 서식하고 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0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마을 이의 산은 들어갈 수 없으며 돌맹이·풀 등도 채취하면 안 된다.

영화 ‘서편제’ 촬영지 청산도는 완도에 서 배로 약 50분 거리다. 이곳 역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며 2007년에는 아시아 최

초 슬로시티로 선정됐다. KBS 드라마 ‘봄의 왈츠’, KBS ‘1박 2일’, SBS ‘여인의 향기’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배경장소로 쓰였고 CNN이 선정한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고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힌 섬이다.

출렁다리로 유명한 강진 가우도는 최근 트레킹 코스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강진만이 한눈에 보이는 고바우전망대로 조성돼 볼거리를 더한다. 강진 대구면 방면 다리(438m)와 도암면쪽 다리(716m)가 육지와 섬을 연결하고 있다.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은 전국 최초 주말시장으로 지역 농수산품과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공연도 펼치는 관광형 전통시장이다.

그밖에 순천만 습지·국가정원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보성 녹차밭은 3회 연속, 담양 죽녹원, 여수 오동도·엑스포 해양공원은 2회 연속 뽑혔다.

전북(6곳)에서는 처음 선정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눈에 띈다. 일제강점기 양곡창고와 관사 등 수탈 역사 흔적이 서린 장소를 디자인 뮤지엄, 비주얼미디어아트 미술관, 감성박물관, 책박물관·공방 등 예술로 재생명을 불어넣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3회 연속), 임실 치즈마을·군산시간여행·부안 변산반도·마이산(2회)이 지역 대표 관광지로 꼽혔다.

타 지역을 살펴보면 한라산, 고궁, 한국민속촌, 울릉도·독도 등 기존 관광지들이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처럼 서울에서는 홍대, 이태원 등 젊은 거리가 이름을 올렸고 인천 동화마을, 강릉 커피거리 등 특화거리가 최신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또 롯데월드,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오션월드, 제주 에코랜드 테마파크, 과천 서울랜드 등 테마파크도 선정됐다.

전체 목록 홈페이지(visitkorea.or.kr) 참조.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근 트레킹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진 가우도.



매주 토요일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 대인예술시장.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호·정 철·김효상·박은수·고희자·신은하·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23(금) ~ 2017. 1.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